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3. 7. 10.(월) 10:00

2. 회의장소 : 현대해상 8층 회의실

3. 출석위원 : 위 원 장 (전주비전대교수) 고 봉 수

위 원 (전북대교수) 유 남 희

위 원 (前시의원) 허 옥 희

위 원 (전북CBS) 남 승 현

위 원 (전주시개발전략위원회) 강 소 영

4. 출석의원 및 공무원(4)

- | | |
|-------------|-------|
| · 도시건설위원장 | 박 선 전 |
| · 도시건설전문위원실 | 박 현 천 |
| · 의 정 팀 장 | 문 건 영 |
| · 주 무 관 | 최 세 인 |

5. 부의안건

(1)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회의록 붙임 참고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 제안설명)

- 위원장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남희 위원 동행 인원을 보면 집행부쪽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
- 박선전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출장 동행을 통해 전주시 현안 발굴 및 실질적 업무 연계에 도움이 되고자 집행부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유남희 위원 사실 이번 출장 주제의 가장 큰 주제가 종합경기장 부지 관련이고 방문 시설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방문시설 중 컨벤션센터의 경우 시설의 규모가 우리 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규모로만 봤을 때는 차이가 크지만 우리가 접목해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현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전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강소영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차 사전설명회가 예정되어있는데 사전설명회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박선전 위원장 가시는 공무국외출장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입니다.

- 강소영 위원 사전설명회를 단순한 1차원적 설명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전문 교수나 전문가 초빙을 통해 정책적으로 얻고자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전 숙지를 한 후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무국외출장 중 현장에서 2차례 정도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을 통해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전 위원장 중요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사전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소영 위원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들 대체로 많은 도시를 보고 오는 것보다 1~2개 도시를 깊이있게 보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할 때는 방문지를 줄이고 깊이 있는 출장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처럼 규모의 차이가 큰 지역을 방문할 때는 외부시설 견학보다는 운영현황 사례 발굴 위주로 출장을 진행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승현 위원 계획서를 보면 출장 목적이 창의적인 의정활동 정책 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 12월말에 대한방직 관련해 두바이 다녀오셨죠? 어떤 정책 개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박선전 위원장 공무국외출장 의원들 중에 본회의 중 5분 자유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정책이 100% 완벽하게 도입된 사

례는 없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남승현 위원 계획서상으로 방문하는 전시공간이 우리 시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슷한 규모의 출장지를 가야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은데요.

○ 박선전 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컨벤션 자체 규모의 차이는 크지만 외부 시설만의 벤치마킹이 아닌 운영방식이나 홍보 방식의 벤치마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승현 위원 일정 중 한인타운과 국립공원 방문일정은 전주시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선전 위원장 국립공원 같은 경우 미국 특성상 효율적인 이동 동선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 동선상 추가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 방문을 통해 하천, 공원, 역사 등 자연생태계 보존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한인협회 방문을 통해 한인 주택 보급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실리콘밸리 방문 일정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젊은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공간 조성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어바인 시청 관계자랑은 다 섭외가 되어있는걸까요?

○ 박선전 위원장 네 섭외가 완료되어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자부담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갈수록 출장지가 예산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수 비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방안을 모색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박선전 위원장 항공권 인상 등으로 사유로 예산 내로 벤치마킹이 가능한 출장지역을 선정하는데는 예산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선진국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다보니 자부담 비율 인상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산의 인상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의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안 맞고는 시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년을 통틀어 상임위원회별로 한가지라도 성과물을 낸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덜어질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출장 장소를 선정할 때 위원회별로 협의를 하고 정해지는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하는건가요?

- 박선전 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3~4차례 정도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사전 설명회를 통해 도시와 연관성 있는 출장계획을 보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자 없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박선전 위원장님께서서는

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서를 저에게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심사서 작성)

심사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서를 본 위원장이 잠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사서 검토)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